

도내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확산

30개 단체 '비상시국회의'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도의원 · 교수협 등 시국선언... 대학도 동참 예정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급속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는가 하면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대학가 등이 각종 시국선언과 성명서를 통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종교·정당 단체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준)'(이하 비상시국회의)을 꾸리고 정권 퇴진 때까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70여 명은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헌 문란의 주범,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현정질서를 붕괴시킨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파에 대한 심판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 이기를 포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정질서가 유린되던 시간에 침묵한 세월호의 진실을 풀어우리

고, 국정문란을 뒤엎기 위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수없이 죽이려던 시도를 심판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자"며 "거리에서 정치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도 결의를 내세웠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탈당은 물론이거니와 청와대 참모 교체, 내각 총사퇴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으로 국정 현안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칫 정치적 공방만 남고 심각한 민생·경제 현안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를 대신할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국민의 인위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단순한 '정권 말기 레인덕'이 아니라 '국정 중단으로 인한 대혼란'

을 초래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조차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성역 없는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6명은 27일 "국정농단의 근본적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강영수, 국주영은, 박재만, 양성민, 양용모, 이혜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대체한 시국성명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안중범 경제수석, 문서전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한 특검과 사법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진, 내각의 총사퇴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교수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우석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박 정권은 원칙과 상식을 무너뜨렸다"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국가 문

란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참모진과 내각 역시 전원 즉각 사퇴하라"면서 "국회는 국민거국내각을 구성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전북대와 전주대, 원광대 등 전북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28일부터 대학 내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7일 학생회 일원들이 모여 규모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시국선언은 2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전주대 학생회를 비롯해 각 대학 총학생회측과 상의해 시국선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 가장 비싸

㎡당 695만원... 도,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 · 공시

전북도는 올해 분할되거나 합병, 지목변경, 신규 등록된 일반용지 2만5,6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중에 공시되는 전체 필지 가운데 분할 토지는 1만7,657필지, 합병은 2,748필지, 지목변경은 3,990필지 등이다.

개별공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따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올해 도내 최고 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 금강제화 부지로 ㎡당 695만원이었고, 최저 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3번지로 ㎡당 161원이었다. /고민형 기자

군산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우수상

군산시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은 주민이 행정서비스의 기획·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공동 참여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전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창의행정 6건, 협력행정 6건 등 총 12건이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 과제 실천으로 지역민과 기업 간 상생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기업에 세나를 이용한 예측복지 실현, 희망나눔 지역복지 사업 등 기업과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으로 품격있는 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사례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문동신 시장은 "민선 4기에서 6기에 이르기까지 483개 기업을 유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정서비스 혁신에도 기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행정, 주민이 하나 되어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도드람' 김제지평선산단에 동지 틀어

후레쉬미트센터 부지에서 공장 기공식... 1200억 투자 예정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27일 김제지평선산단단지 내 도드람 김제후레쉬미트센터 부지에서 기공식과 함께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진흥 정무부지사, 이진식 김제시장, 나병문 김제시의장, 이영규 도드람조합장 등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드람의 인성과 변역을 기원하고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도드람은 1990년 설립 이래 원료 생산부터 가공, 컨설팅, 출하(유통), 금융까지 수평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최고의 종합육가공조합으로 '도드람포크'라는 최고급 브랜드와 8개 자회사를 통해 연매출 1조 9천억원의 사업규모를 달성한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1위의 협동조합이다.

도드람은 김제지평선산단단지 부지면적 5만2,444㎡(1만5,800평)에 1,20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1,100명의 인력을 채용해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도드람 김제FMC는 호남지역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호남권 거점기능과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27일 김제지평선산단단지 내 도드람 김제후레쉬미트센터 부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했다.

창정고기 수출 전진기지, 최첨단 축산물 가공단지로 육성되며, 덴마크, 독일 등 선진축산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과 안전 밀폐식 건축을 통해 국내 최고의 친환경 종합육가공공장으로 운영된다.

도드람 이영규 조합장은 "도드람 김제FMC를 거점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브랜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축산식품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축산 종합식품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도드람 김제 FMC 설립으로 지역 내 축산농가와 함께 동반성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1,1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대 등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지평선산단은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새만금신항, 새만금국제공항 등 최적의 물류망과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국 각지의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여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23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도드람, 로얄캐닌, 세중산업 등 10여개 업체가 건축 또는 설계 중에 있어 투자 열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 시내·시의·농어촌버스 1400여 대 일제점검

전북도는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23개 업체 1,453대(16년 9월 기준)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업체별 차고지 및 영업소 등에서 환경개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요점검 사항은 차량 내·외부의 청결, 도색, 타이어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안전벨트 관리상태 및 안내방송 실시여부, 운전원 자격증명 게시함 부착, 비치관리 및 CCTV 안내문 부착관리 상태 등이다.

아울러 차량 측면과 후면, 교통카드 단말기 작동 상태 및 승·하차문의 전자감응장치 등 시설물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업체에 현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점검결과가 불량하거나 지적사항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차량 내·외부 및 환경 불량차량 16대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원

도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7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을 열었다.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재활, 구직, 공공후견인 지원, 문화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며 개인별 지원팀과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으로 꾸려진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